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강진고 방문 교육가족과 '공부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논의

다산박물관도 찾아 '실용교육' 통한 전남교육 대전환 각오 다져



김대중 제19대(주민직선 4기) 전라남도교육감이 1일 오후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강진고등학교와 다산박물관을 찾아 당면 현안인

교육력 제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남교육 대전환'의 각오를 다졌다. 김대중 교육감이 첫 현장 방문지로 전남

농어촌 거점고인 강진고를 선택한 것은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핵심정책으로 천명한 '공부하는 학교'와 '교육력 향상' 실현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남 학생들이 전남에서 공부해 전남의 인재로 성장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후 강진고를 방문해 교직원, 학부모, 동문, 강진군의원 등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교육력 제고 방안, 진학지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 급식질제고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김병인 강진고 교장으로부터 강진고의 최근 3개년 대학진학률이 90%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농어촌 학교도 교육력을 높이면 얼마든지 도시 학교 못지않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참석한 교육가족들로부터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방과

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수강사 확보, 대입 전형제도에 대한 학부모 교육 필요성, 돌봄 제도 내실화 등의 건의를 받고 공감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입국을 시작한 첫날 강진고에 와서 교육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니 전남형 교육자치, 미래교육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더욱 선명해진다."면서 "앞으로 4년 간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강진군 도암면 다산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실을 둘러보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용교육 정신을 되새기고 전남교육 대전환의 각오를 다졌다.

김 교육감의 다산박물관 방문은 문답과 토론교육을 실현하고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만들어낸 다산 선생의 실용교육 정신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는 다산박물관에서 전시실 안내를 해준 문화해설사들과 만나 "2백년 전 다산 선생은 전남교육이 가야 할 길을 이미 말해주었다."며 "그 가르침을 꼭 새겨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환 기자



곡성교육청, '유치원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곡성교육지원청은 6월 28일과 7월 1일 이틀에 걸쳐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교원 28명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유치원교사생활 지원을 위한 '유치원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연수와 힐링원에 연수로 두 가지 주제로 기획되었다.

'유아를 들여다보며 성장을 담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첫째 날 연수는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권귀영 교수를 초청하여 ▶ 유아놀이 들여다보기 ▶ 유아놀이 의미있게 ▶ 유아놀이 지원하기 ▶ 놀이와 성장을 잇는 관찰기록 ▶ 새롭게 이해하는 유아평가 ▶ 놀이관찰기록 실제 및 가정연계 등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교사들의 고민이 되는 지점들에 대해 사례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힐링원에 연수는 방과후과정과 교육과정 선생님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와 바쁜 삶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스스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 안개꽃 화관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김은정 선생님은 "놀이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하면서도 잘 하고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유아의 놀이를 의미있게 바라보고 교사의 관점이 아닌 유아의 관점으로 놀이 안에 들어가 유아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힐링원에 연수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내 자신을 다독여 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수 교육장은 "유아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유아가 놀이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며 어떻게 놀이를 이어가는지 유아의 놀이를 의미있게 들여다보며 지원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원예힐링 연수가 코로나로 지친 몸과 일상으로부터 잠시나마 멈추고 쉼이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교육지원청은 슬기로운 유치원교사생활 지원을 위한 연수 이외에도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진로설계역량을 지원하는 '슬기로운 중학교교사생활'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다.

곡성=양해영 기자

함평교육청, "존중과 배려를 품은, 교직원-학부모 다모임 운영"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23개교 교직원·학부모 60여명 참여

함평교육지원청은 1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23개교 교직원과 학부모 60여명이 함께 하는 교직원-학부모 다모임을 진행했다.

교직원-학부모 다모임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의 일환으로 교직원과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각 학교별 2022년 학부모회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동시에 학부모회의 기능과 역할 및 바람직한 학부모회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함평장의용합교육관 1층에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함평학부모연합회의 매월 정기 회의와 및 두 달에 한번 진행되는 학교별 학부모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및 학부모자



치를 지원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양평생교육관, 빛드림 학당 디지털 문해교육

광양평생교육관은 지난 6월 30일 성인문해교육 초등·중학 학력인정과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격하게 확산된 디지털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교육관 홈페이지 가입 ▲인터넷을 통해 수업 듣기 ▲알림, 시계, 계산기 등 기능 활용 ▲어플로 버스 도착시간 확인방법 등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기능을 배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교육청, '2022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수 및 컨설팅'

자유학년제 운영사례 공유

순천교육지원청이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회의실 4~6에서 관내 중학년 1학년 부장 및 자유학년제 담당 교사, 컨설턴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

수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학년제 운영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다양한 자유학년제 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단위학교의 자유학년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선택활동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세부 준비사항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